아! 나는 정말로 교만하고 싶다

(열왕기하 14:1~22)

8.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9.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0.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11.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14.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 나는 정말로 교만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 나는 정말로 교만하고 싶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제목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웬만하면 찾지 못하는 구절이 없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아! 나는 정말로 교만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구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많지만 “아! 나는 정말로 교만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이 말과 뜻이 100% 똑같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봅니다.

“아!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다 / 아! 나는 일류대학 들어가고 싶다 / 아! 나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이 되면 참 기쁠 텐데’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이 있

는데, 그러한 가치들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100% 교만하고 싶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제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의 기쁨이 곧 교만이고, 그 기쁨이 겹겹이 쌓이면 숙성되고 썩어서 예외 없이 교만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어제 이 땅에서의 성공적 생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밑천은 몸이면 되는데, 다만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몸이 드려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스펙이나 이력이나 조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점이 되기 때문이고 그 전형적인 예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뒤 그 뼈에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난 것은 엘리사의 몸이 하늘의 거점이었음을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이 생의 밑천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점이 되게 하라'는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생의 유일한 밑천인 몸을 내어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묶여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내 몸은 저절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점이 되고 내 생애의 필요 충분한 밑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봅니다. 눅10: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자면 기쁨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처럼 맥 빠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잘 와 닿질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가고, 불치병 환자를 고쳤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군대에서 1년 만에 휴가 나온 아들에게 갈비구이를 맛있게 구워놓고 '갈비를 맛있어 하지 말고 밥을 물에 말아 김치랑 먹는 것을 맛있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랑 먹어도 개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나온 아들이 갈비구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밥에 물 말아 먹는 것을 맛있어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맛이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는 동안에는 하늘의 맛

을 느낄 수 없고 하늘로 기뻐할 수 없으며 내 몸이 생의 밑천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사십일 만에 곧바로 승천해버리셨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엘리야를 따라서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 승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뿐 아니라 추구한대로 손에 쥐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 것에 의한 기쁨은 반드시 교만으로 숙성되고, 교만은 올라서면 허물어질 발판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기쁨이 쌓일수록 높아지고, 그 높아짐이 올라서면 허물어져서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교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망할 때의 처참함 정도도 커집니다.
돈을 벌어서 기쁘겠다는 말은 나는 반드시 교만하겠다는 말이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은 높이 교만해지겠다는 말입니다. 높이 교만해져서 낙차가 큰 떨어짐을 통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일류 대학을 들어가서 기쁘고 만족하고 싶다면 반드시 교만하고 싶다는 말이고, 그 높아진 교만만큼 떨어짐으로 처참하게 멸망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돈 벌고 싶다는 말이 멸망해서 떨어져 죽고 싶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남 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성전에 숨겨져서 살다가 일곱 살에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암살당하고 그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는 교만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 나는 하늘로만 기쁘고 싶다”라는 말씀이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 밖에 없는 몸을 인생의 밑천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점 삼으신 엘리사의 삶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다가 성취를 해서 높이 올라가서 땅에 떨어져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아마샤를 통해 보여 집니다.
본문 아마샤에 대해 평가하기를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이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이 역대하 25:2절에서는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정책이나 행동의 원칙으로 율법을 채택했다는 것이고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의 설계와 구성대로 마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즉 마음이 스마트성전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못했다는 것

이고 그 결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껄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있으셔서 내 생애에 대해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나대로 계획하고 소원합니다. 성전에 가면 나의 이러한 인격이 번제단에서 불타 죽어야만 하지만 산당제사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내 생각과 소원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었고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당제사의 마음을 가진 아마샤의 삶에 형통이 주어졌습니다.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라고 하는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곧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던 자들이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원로 정치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굳건히 장악했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에돔은 아마샤 왕의 할아버지인 여호람 왕 때까지 유다의 속국이었다가 배반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에돔에 쳐들어가서 전역을 평정하고 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서 사해의 소금골짜기에서 다 죽입니다. 또한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다시 속국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정권을 확립했던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채택해서 자신의 도덕적 명분 또한 확립하여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승승장구의 여세를 몰아 북 왕국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사건 중에 역대하에서 기록하는 다른 사건들이 있지만 열왕기하에서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포고를 하자 북 왕국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의 교만함에 대해 책망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 높이 들다'라는 뜻으로 나 스스로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추구했고 성취했기 때문에 마음이 겹겹이 쌓여서 발판이 되어줌으로 높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거리들은 성취하면 예외 없이 나를 들어 올리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엄청나게 교만해졌다가 북 왕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사백 규빗이나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곳간의 금은과 기명을 탈취 당하며,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고 아마샤 자신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귀환하였으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신복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해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잡혀죽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거리로 정해놓은 것들을 성취하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의 기쁨거리는 반드시 교만으로 숙성이 되고, 그 교만하게 숙성된 기쁨은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발판이 되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낙차가 크면 클수록 땅에 처박히는 처참함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도 참 겸손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 좀 있다고 어지간히 거만을 떨고 있네.'라는 말도 하는데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고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전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음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11: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 '야!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치와 신분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잘못에 대한 것을 추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마21:3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 앞에서 대드시고, 모든 사람의 존경이 향하는 자리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엎으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혈기왕성할 그 연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기쁠 거리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실천적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나 만족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유일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청진기가 되어주는데 우리가 이 점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얻으면 얻는 대로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수위 아저씨의 아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사장님의 아들이 삼류대학에 들어갔다면, 수위 아저씨 마음에 '돈은 네가 더 많지만 자식 농사는 내가 더 잘 지었다'라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교만할 뿐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아들이 일류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로인해 기뻐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네가 일류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너는 바보다. 하늘로 기뻐하지 않는 한 일류대학은 네게 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투가 온유하지 않고 강퍅할지라도 실은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유전 죄의 본성상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 끊임

없이 교만해지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은 곧 교만을 그만큼 예약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처럼 세상의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추구함이 형통하게 성취될 때에 오히려 삶은 끝나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는 한 성취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크면 클수록 예외 없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렇다 할 만 한 지위도 주시지 않으시고 취직도 변변히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교만해지므로 높아진 만큼 떨어져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하게도 교만을 예약하고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통되게 하시느라 지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사의 삶과 같이 막힘없는 삶이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음을 묶어서 하늘로 올려보냈던 것처럼, 하늘로만 기뻐해야 이 몸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하나님의 밑천이 되어서 재벌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벌된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류대학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족의 이유로 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일류대학을 못간 이유는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교만해져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교만을 예약해 놓고 달려가는 삶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